

# 엔터테인먼트

## Entertainment

### 이병헌 日 드라마 출연

### 배우 오다 유지와 호흡

톱스타 이병헌(40)이 '츄츄는 대수사선'으로 유명한 일본 인기 배우 오다 유지 주연의 드라마 '외교관 구로다코사쿠'에 특별출연한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25일 "외교관 구로다코사쿠"는 일본 후지TV에서 내년 1월 방송한다"며 "이병헌이 일본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후지TV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후지TV 측은 "사건을 푸는 열쇠를 쥐고 있고 임팩트가 강한 역할이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이병헌 씨가 적격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 장동건

배우 장동건이 돌아왔다. 장진 감독의 '굿모닝 프레지던트' 이후 1년여 만이다. 무엇하나 부족할 것 없는, 자신감 넘치는 젊은 대통령에서 이번에는 천하제일고수 역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할리우드 진출작이라 할 수 있는 '워리어스 웨이'의 개봉을 앞두고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배우 장동건을 만났다. 영화는 다음달 2일 한국에서, 하루건너 3일에는 미국에서 개봉한다.

'워리어스 웨이'로 할리우드 진출



## '가수 복귀' 김현중

# “연기 대상 받고 월드투어 콘서트도 열고 꿈 너무 많아요”

지난달 종방한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장기)가 저조한 시청률에 허덕였지만 주연 배우 김현중(24)의 주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그가 출연한 이 드라마의 인터넷판은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고 광주 아시아개입 개막식에는 중국어권 이외의 가수로는 유일하게 10만명의 관객 앞에서 테마곡을 부르기도 했다.

한 화장품 회사와는 2년간 17억원이라는 과격적 조건으로 모델 계약을 맺었고 '장난스런 키스'는 그의 이름값 덕분에 11개국에 수출돼 40여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김현중은 인터뷰에서 "전 세계 팬들 앞에서 공짜 콘서트를 여는 것이 꿈"이라며 "조만간 아시아 전역에서 솔로앨범을 동시 발매할 것"이라며 가수 복귀 계획을 밝혔다. 저조한 시청률로 막을 내린 '장기'에 대해서는 "시청률에는 처음부터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이전보다 연기가 발전했다는 팬들의 평가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김현중은 '장기'에 출연하기 직전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와 매니저먼트 계약을 맺었다. 비슷한 느낌의 외모에 같은 소속사 선배배 사이가 되다 보니 '리틀 배용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배용준을 "좋은 조언자이자 든든한 선배"라고 말한다. '장기'의 첫 방송 직후에는 배용준에게서 "시청률이 너무 얌매이지 마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드라마와 CF 출연에 해외 일정, 음반 준비 등으로 쉴 새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에게 "너무 바쁘게 사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여유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당찬 대답이 돌아왔다.

"연기자로 영화제나 연말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남우 주연상을 받아보고 싶어요. 가수로는 아시아와 월드 투어 콘서트도 열어보고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팬들을 모아 관객들이 원하는 만큼 입장료를 내는 공짜 콘서트를 열어보는 게 꿈이에요.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는 데 쓰면 뜻 깊지 않을까요."

24살 총각인 김현중에게 1년, 5년, 10년 뒤의 모습이 각각 어떤 것 같냐고 물었다.

"1년 뒤에는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여는 게 목표예요. 5년 쯤 뒤에는 세계 팬들 앞에서 공짜 콘서트를 열었으면 좋겠고요. 10년 뒤에는, 아마 결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없거든요. 5년 뒤 콘서트의 꿈을 이뤄놓고 나면 아마 마음이 편해져서 연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웃음)

/연합뉴스



# “하면된다...자신감 얻었어요”

장동건이 맡은 텀빈 눈동자라고 불리는 남자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가슴은 뜨거운 인물이다. 냉혹한 검사(劍士)에서 사랑을 느끼는 남자, 그리고 마을을 구하는 영웅으로 변모해 간다. 가슴 속 변화는 오동치지만 뜨거운 속내를 숨긴 채 차가운 겉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정의 온도와 기온기가 달라지는 인물을 쫓는 표정과 눈빛으로만 표현해야 했다. 기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도전이었을 건 분명하다.

## “CG 많아 혼자 연기 힘들어”

“눈에 힘만 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연기하니 다른 작품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는데 그걸 억눌러야 하니 힘들었죠.”

또 다른 어려움은 홀로 연기하는 장면이 많았다는 점이다. 영화는 대부분 세트 촬영인데다가 컴퓨터그래픽(CG)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소품도 없이 그린스크린에서 찍는 장면들이 있어요. 상대 배우의 리액션을 받을 수 없었죠. 상상력에 의존해야 했는데 나중에는 답답하더라고요. 배경이 사막인데, 사막이면 바람도 불고 햇살도 내리쬐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영화의 시대·장소는 모호하다. নিজ 같은 살수들이 등장하고, 서부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총잡이들도 나온다.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고, 판타지가 뒤섞여 있다.

## “영화현장 세계 어디든 비슷”

자신이 맡은 남자주인공이 নিজ처럼 보여 부담스럽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다. “제가 이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또 নিজ나라는 말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서양에서는 ‘ নিজ = 일본’이 아니거든요. 그저 동양 무사를 নিজ이라고 여겨요. নিজ이 일본의 콘텐츠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꽃미남이라는 수식어는 데뷔 때부터 그를 따라다녔다. '워리어스 웨이'에서 호흡을 맞춘 케이트 보즈워스조차도 “세계의 어떤 여성이 보더라도 장동건 씨는 잘생긴 배우다. 그런 명백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미남이라는 장점을 배우로서 활용해 본 적은 별로 없다고 한다. '무극'(2005년)에서는 “누더기”를 입고 뛰어다녔고, '워리어스 웨이'에서도 후출근한 옷을 입고 연기했다. 현재 촬영 중인 강재규 감독의 '마이 웨이'에서는 군복을 입고 진흙 바닥을 뒹군다.

"2009 로스트 메모리즈"(2002), '무극'에 이어 3번째 해외에서 영화를 찍은 그는 "경험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며 앞선 경험 덕분에 중국에서 찍은 '무극'보다 이번 영화가 연기하기 더 수월했다고 했다.

“영화 찍는 건 세계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배우의 임무는 항상 똑같죠. ‘다르지 않구나’, 영화 현장은 ‘똑같구나’라는 데서 오는 자신감은 생겼습니다.”

올해는 일로도 바빴지만, 개인적으로도 부산한 한 해였다. 지난 5월 톱스타 고소영과 결혼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첫 아들도 얻었다. 장동건은 지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럼 좋은 아빠가 됐을까. 현재까지는 “좋은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한다. 바쁜 일정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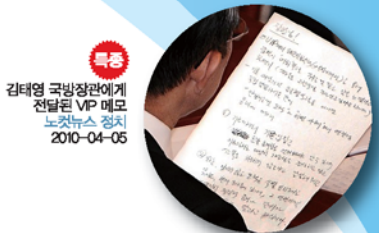
## “너무 바빠 가족들엔 미안”

“결혼 이후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지금 군산에서 ‘마이 웨이’를 찍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남 정도 됐는데 얼굴을 두 번 정도밖에 못 봤어요. 신생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최근에는 한 복지단체에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신생아들과 미혼모들의 복지를 위해서다.

“우리의 행위가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 영향을 좋은 쪽으로 활용해보고 싶었어요. 기부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해 색안경을 끼는 시선도 있고, 칭찬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개의치 않고 꾸준하게 할 생각입니다.” /연합뉴스

-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뉴스
- 깊이와 미래를 보여주는 뉴스
- 언제 어디서나 모든 매체에서 만날 수 있는 뉴스
-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 대한민국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뉴스



# CBS가 대한민국 No.1 TV뉴스채널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뉴스의 대명사’ CBS가 ‘인터넷 뉴스의 최강자 노컷뉴스’의 신화를 넘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보도전문채널(보도PP)에 도전합니다.

## CBS와 미래를 함께 하실 투자자를 찾습니다.

CBS는 섬김과 나눔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 파트너 절대 존중
- 투자자의 조기 실현
- 주주 가치 극대화

참여방법: 자세한 참여방법은 CBS 홈페이지(www.cbs.co.kr)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 서울 본사 신규미디어사업본부 02-2650-7080~4 / 전국CBS 지역방송본부 총무국

이메일: goodnews@cbs.co.kr